

침체 빠진 태양광업계, 美 중심 해외투자로 활로 찾는다

한화큐셀 매출 중 수출비중 80% 내수 악화 속 미국 사업확장 지속 연 8.4GW 규모 조지아 공장 구축

OCI홀딩스 미국에 3840억 투입 셀 공장 세우고 내년 상반기 생산

국내 태양광 업계가 침체에 빠진 한국 시장에서 눈을 돌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설치량 감소와 정책 지원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단독 공장 설립 등으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3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기업 95% 이상은 지난해 국내 시장 여건이 악화됐다고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악화 주요 요인으로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정책 약화, 경기 침체, 규제확대, 송전선로 부족 등이 지목됐다.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2.5GW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5GW를 정점으로 지속 떨어지는 모습이다.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 부문 한화큐셀의 한국 공장 가동률도 하락세를 보

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큐셀의 한국 공장 가동률은 33%로 지난 2021년 94.8%와 비교했을 때 약 61%포인트가 떨어졌다. 국내 시장 축소와 미국 공장 건설 영향이 맞물리면서 하락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큐셀의 내수와 수출 시장 비중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큐셀 수출 매출은 1조2351억원, 내수는 2966억원으로 전체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내수 매출은 554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사이 46% 가량 줄어들었다.

내수 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연 생산능력 8.4GW 규모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국 태양광 모듈 수요의 25%를 차지한다는 포부다.

일각에서는 한화솔루션이 해외 계열사에 제공한 채무보증금액이 6조원을 넘어서 이에 대해 경영 불안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화솔루션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 유

지에도 힘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OCI홀딩스 또한 미국 태양광 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 부지에 독자적으로 태양광 셀 생산 공장을 세워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집중한다. 투자금액은 총 2억 6500만달러(약 384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1GW의 태양광 셀 상업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2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셀 제조사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1W(와트)당 4센트의 첨단 세액공제(AMPC)를 받게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활로를 해외에서 찾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기대되는 시장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보다는 단독 공장 설립을 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처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계·기업 빚 절반은 ‘부동산 대출’… 매년 100조씩 증가

한은-금융위, 정책 컨퍼런스 “부동산 대출 증가세 적정 관리 생산기업 대출 인센티브 늘려야”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기관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규모가 전체(가계+기업) 대출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금융연구원 부동산 신용 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출의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 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가계+기업)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부동산 신용은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2013년과 비교해 2.3배 확대됐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가계 부동산 대출(주택 관련 대출+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산정한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포함)과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부문은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신용이 늘었고, 비은행은 2018년 이후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날 최 국장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이 안정적으로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돼, 기업대출 부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해 왔다. 가계대출은 담보가 있는 만큼 부실위험이 적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현행 15%)을 20~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 대출 가중치의 약 5분의 3 수준”이라며 “자본 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 여력을 부동산 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19.3%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JP모건 “美 상호관세 부과 경기침체 위험 높여”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경제학자들은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미국 경제 모멘텀을 방해해 단기적인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NBC 등에 따르면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페렐리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관세로 고정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4000억 달러 미만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1968년 세입법 이후 최대 규모 세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오늘 발표된 조치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을 1.0~1.5%포인트 올릴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은 대부분 2분기와 3분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 상승은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 결과 미국 경제 성장 원동력인 실질적인 소비 지출이 위축돼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불황에 빠질 수 있다.

JP모건은 발표에 앞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JP모건은 더 나아가 이전 전망치인 수출 감소와 투자 감소로 인한 잠재적인 하방 압력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관세 부과 대상국들이 하나 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JP모건은 관세 범위와 기간 등을 둘러싼 혼란도 지적했다. 이것은 이미 긴축 재정 상태인 기업들의 심리와 자본 지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JP모건은 이번 주 후반 정책 시행과 글로벌 대응 등 상황이 명확해지면 추가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외환보유액 4097억 달러… 3개월 만에 반등

한은, 3월 잔액 전월비 4.5억 달러 ↑ 금융기관 BIS비율 준수, 예수금 증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심리적 지지선인 4100억 달러는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달러 약세에 따라 기타 금융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은 증가했지만,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거래 등으로 달러가 빠져나간 영향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96억 6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금융기관의 BIS 비율 준수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환예수금이 증가했다”며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기타 통화의 미 달러 환산액도 늘며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월 말 주요국 외환보유액) (단위: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증감)
1	중 국	32,272 (+182)
2	일 본	12,533 (+127)
3	스 위 스	9,238 (+65)
4	인 도	6,387 (+81)
5	러 시 아	6,324 (+116)
6	대 만	5,776 (+0)
7	사우디 아라비아	4,329 (-13)
8	홍 콩	4,164 (-51)
9	한 국	4,092 (-18)
10	독 일	4,067 (+64)

/자료=한국은행

지난달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일제히 증가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

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2월 말 10.24에서 3월 말 104.04로 한달 사이 3.0% 떨어졌다.

달러화 약세의 여파로 유로화 가치

는 4.1%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화 달러도 각각 2.7%, 0.7%씩 상승했다. 일본 엔화는 0.2% 절상됐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615억 3000만 달러로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한달 전과 비교해 41억 5000만 달러 늘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38억 4000만 달러 줄어든 241억 7000만 달러(5.9%)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49억 8000만 달러(3.7%), 금 47억 9000만 달러(1.2%), IMF포지션 41억 9000만 달러(1.0%)가 외환보유액을 구성했다.

지난 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2272억 달러로 한달 사이 182억 달러 증가했다. 2위 일본은 1조 2533억 달러, 3위 스위스는 9238억 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